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업무상 움직이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 직원 체육행사나 워크숍이라도 가는 날엔 자연에서 뿜어주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평소 보지 못한 동료들의 표정과 대화들로 생기가 넘치기도 하는데요. 2008년 6월 스포츠동호회 창립은 이같이 연구원 생활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더럭, 회원으로 가입 그리고 회계, 때로는 간사로 동호회와 함께 지내온 지 어느새 1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사진 속 모습들을 보다 보니, 마치 주상절리와도 같은 여러 다양한 모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업무와 병행하여 동호회 임원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모여 웃고 땀 흘리고 즐기다 보니, 자부심과 보람을 찾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부족한 표현력이지만 함께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토대로, 한국법제연구원 스포츠동호회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스포츠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스포츠동호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회원간에 스포츠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결성된 동호회로써,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함과 동시에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밀접한 생활스포츠들을 통해 연구원 구성원들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12년간 결속을 다져온 인증된 동호회입니다.

스포츠동호회는 2008년 6월 5일 33명의 회원으로 1기 발대식을 하여, 2020년 4월 현재는 10기로 31명의 회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회원에 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연구원내 비회원 및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 일사일촌(一社一村) 지역의 체험행사를 개최 때로는 연구원내 다른 동호회와 연합하여 공동주최로 활동을 하거나 동호회 활동종목이 유사한 다른 기관 분들이 참여하여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스포츠동호회는 세종청사로의 이전 등 연구원의 역사 및 기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모해 왔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김경미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 전문연구원
✉ aramaru@klri.re.kr



2008년 스포츠동호회 첫 정기모임 동강 래프팅



2019년 축구대회(동사모 연합)

연구원의 서울 양재동 청사 시절 5년간 1기~6기('08.06.~'13.12.)까지의 스포츠동호회는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초여름 발대식을 한 스포츠동호회의 첫 활동은 회원 가족들도 함께 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던 동강 래프팅이었고, 이를 시작으로 당구, 등산, 볼링, 탁구, 발야구 등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요. 연구원 바로 앞에 펼쳐진 자연공간인 양재천변을 달리는 마라톤을 개최하기도 하고, 낚시를 하는 경우엔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에 실내낚시 및 바다낚시뿐 아니라 겨울철에 얼음 낚시까지, 가족을 동반하여 다소 색다른 경험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골프 체험 및 건강증진운동인 바르게 걷는 방법과 이론을 배우기도 하고, 월드컵 아시아 축구경기 남북한 최종예선전의 관람을 통해 하나로 단합된 힘을 다져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사1촌 지역

을 방문하여 논과 밭으로 농촌체험을 하고, 함께 어우러져 족구 등의 친선 체육행사 및 연 날리기 등의 전통놀이를 하며, 사회 일원으로서 소통해 가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양재동 청사 인근 청계산부터 소백산 겨울산행 그리고 구룡산 야간등산까지 추진되었던 등산모임의 경우는, 스포츠동호회 회원뿐 아니라 유관기관에서도 참여하여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가봤던 소백산 겨울산행에서의 눈꽃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관으로 기억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스포츠와는 다소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한가위 부서대항 율놀이 대회와 같이, 활력 있는 직장생활을 만드는 활동들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여 신청사에서의 8기~10기('14~'20) 스포츠동호회의 활동은 인근에 정부청사 및 연구기관들이 함께 위치하고 산이나 역사적인 장소가 지역적으로 좀 더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그에 따른 활동이 주로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올해로 개원 30년이 된 연구원이 지나온 시간만큼, 그 역사를 함께 했던 선배이자 동료였던 분들이 연구원에서의 시간이 다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어만 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는데요. 동학사 트래킹, 공주 계룡산 갑사 산행 등의 다양한 등산모임 중에서도, 계룡산 등산은 한때 함께 근무했던 연을 두고 계신 법연동우회 분들과 동행하여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활동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종국책연구단지 테니스연합회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배 축구대회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등 세종시 이전 유관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산 산행이라든지 평창 동계 올림픽 관람과 같이 서울로 또는 평창으로, 변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활동영역을 넓혀 보기도 하였고, 스타법스라고 하는 일과 쉼의 균형있는 조직문화 형성 및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원 행사에 참여하거나, 러시아 월드컵 직원단체 응원 행사 지원 및 개원 기념 족구·배드민턴 대회 동호회 연합 활동 참여 등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연구원 구성원으로써 스포츠동호회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세종시 이전 7년째, 연구원 인근에 위치한 금강변을 따라 활동하기 좋은 시설공간들이 점차 자리해 가고 있고, 호수공원을 중심으로도 다양한 레포츠들을 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변에 갈래갈래 돌레길과 작고 큰 푸른 산들이 있고, 한시간반 거리쯤에 위치한 덕유산에서는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안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지만, 곧 건강해진 사회분위기에 스포츠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종시 이전과 함께 더욱 성장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개개인의 행복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스포츠동호회를 기대해 봅니다.